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단기 불확실성에 대한 노출강도가 커졌다. 무엇보다도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대선 지지율 변화에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환율과 신용리스크 지표들의 등락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펀더멘털에 대한 눈높이 조정과정 속에 불거진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투자심리에 부정적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지지율 등락은 상반된 정책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조정, 업종/종목별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미국 5차 경기부양정책 의회 통과 이슈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하방경직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을 넘어설 정도의 상승동력이 될지는 자신하기 어렵다. 확률상 낮더라도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관련 최악의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를 시장은 일정부분 반영해나갈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트럼프 대선 지지율 올라도, 내려도 변동성 확대 불가피

- 확률상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치료를 받으며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결국 완치되는 것이다. 이 경우 두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경우, 지지율이 정체 또는 추가 하락하는 경우이다.
- 필자는 기본 시나리오상 지지율 등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트럼프는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 7%p, 1차 TV토론 이후 당선 확률은 23.5%p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지지율 격차 축소도, 격차 확대도 미국/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본다.

1) 트럼프 지지율 상승 = 대선 불복 시나리오 부상

- 트럼프가 치료를 마치고, 치료제 효능을 홍보하고, 자신의 건강함, 굳건함을 강조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동정여론이 유입될 경우 트럼프의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실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되었을 당시, 지지율은 40% 초반에서 70%까지 급상승한 바 있다. 과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지층이 결집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 두가지 변수가 반영된다면 트럼프의 지지율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 이 경우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며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재부상할 것이다.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대선과 그 이후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 트럼프 지지율 정체/하락 = 바이든 정책 불확실성

- 한편, 트럼프가 대선 유세에 나서지 못하고, 대선 캠프에서 확진자가 속출할 경우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 코로나19 확진 이후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커진다면 동정여론 유입 또한 제한적일 것이다. 이 경우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지지율 격차가 유지되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반면, 바이든 정책에 대한 경계심리가 커질 수 있다. 바이든의 증세, IT기업규제 강화는 지금까지 미국 증시의 상승추세를 견인해 왔던 주된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IT, 성장주에 대한 고밸류 논란으로 이어지며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당분간 트럼프발 변동성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펀더멘털 눈높이 조정 & 경기회복 속도 둔화 Vs. 미국 5차 경기부양정책

금융시장의 하방경직성 강화는 가능. 불확실성을 극복할 정도의 상승동력으로서 힘은 미지수

-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을 배제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의 추세적 상승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 글로벌 경제지표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진행 중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G10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모두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의 높아진 펀더멘털 눈높이가 하향조정 중임을 시사하는 한편,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실제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연휴 전 유럽 서비스업 PMI 부진에 이어 연휴 동안 발표된 미국 ISM제조업 지수, 고용지표는 전월대비, 시장 컨센서스 대비 부진했다.
- 물론, 미국 5차 경기부양정책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미 민주당은 2.2조달러 규모 부양책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1.6조달러 규모 부양정책을 고수했던 백악관과 공화당이 더 이상 부양정책을 미룰 수 만은 없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재무장관의 긴밀한 협의 속에 트럼프 대통령도 3일(현지시간) 협력해 성과를 내라고 촉구함에 따라 경기부양책 의회 통과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경기부양정책이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넘어설 정도의 상승동력이 될 수 있을지는 자신하기 어렵다. 지난 주말 트럼프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경기부양정책 합의 기대가 낙폭을 줄이는 변수는 되었지만,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미국 5차 경기부양정책으로 글로벌 증시의 하방경직성 강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부담, 정치적 불확실성을 넘어설 정도의 상승동력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악의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

미국 대선에 대한 해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

- 확률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악화 시 *미국 수정헌법 제 25 조 3항이 발동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정치적 리스크, 대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혼돈을 가할 수 있다. 트럼프가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꼬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우편투표가 실시되었고, 대선이 한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후보 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상 법률로 정해진 대선이 연기된 적은 없었지만, 대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현재로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해법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불확실성 변수이다.

* 미국 수정헌법 제 25 조 3항 : 케네디 대통령 암살 뒤 1967년 채택. 대통령이 의학적 무능력 상태에 놓일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 승계 1순위 부통령, 2순위 연방하원의장, 3순위 상원 임시의장. 건강을 회복한 이후 상/하원에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통보, 권한 회복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은 글로벌 금융시장 단기 변동성 확대 폭과 기간에 영향을 줄 것

- 필자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해 왔다. 9월 전망을 통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속도 논란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조정시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 코로나19 확진은 단기 변동성 확대 폭이나 기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의 건강상태나 지지율 등락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지거나 조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11월초 대선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른 두 후보의 승복 여부가 확정되어야 시장은 안정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 위험자산, 주식 비중확대 전략 유지. 결국에는 펀더멘털이다

- 하지만 긴 호흡에서 위험자산, 주식 비중확대라는 전략 뷰는 유지한다.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의 추세를 결정짓는 펀더멘털 동력은 유효하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 연준에 이어 ECB도 디플레이션 파이터로 나섰다. 글로벌 Asset Inflation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로 본다.
- 과거 케네디 암살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국 증시(S&P500 기준)의 변동성 확대는 단기에 그쳤다. 궁극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펀더멘털이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63.11.22) 당시 미국 증시는 단 하루 충격(-2.8%) 이후 곧바로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미국 GDP 성장률은 부진에서 벗어나 확장국면으로 진입, 5% 이상 고성장국면으로 진입하던 시점이었다. 레이건 대통령 수술(85.7.13) 이후에도 미국 증시는 경기 2차 확장국면 진입과 함께 상승추세를 재개했다.
- 정치적 불확실성은 영원하지 않다. 이번 미국 대선도 어떻게든 결론이 나고, 차기 대통령은 상당기간 동안 경기부양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펀더멘털 회복, 모멘텀 강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발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이다.

KOSPI 2,100선부터 조정시 비중확대 전략 권고

- 추석연휴 전 KOSPI는 직전 저점이자 단기적으로 중요 분기점이었던 2,270선에서 반등에 성공, 2,32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필자는 추격매수는 자제하고, 지수 조정시 점진적인 비중확대 전략을 언급해 왔다. 트럼프발 불확실성 확대로 KOSPI는 단기적으로 2,270선을 하향 이탈, 추가적인 레벨다운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
- 1차 지지선은 KOSPI 2,150선 전후일 가능성이 높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올해 평균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업의 1차 변곡점이다(12개월 Fwd PER 11.415배, 확정실적 PBR 0.865배). 트럼프 건강상태와 지지율 추이에 따라 KOSPI 지지선이 더 낮아지더라도 2,000선 이탈 가능성은 낮다. 기술적 분석상 Rock Bottom Line(상승폭의 32.8% 되돌림)과 12개월 선행 PER 11배가 2,070선이다. KOSPI 2,100선부터 조정시 매수, 2,100선 이하 적극 매수전략을 유지한다(9월 전망에서의 지수대 매매전략).

최선호 업종 : 인터넷, 2차 전자, 제약/바이오 + 반도체, 자동차

- 업종 전략에서도 구조적 성장을 보이는 업종(인터넷, 2차전자, 제약/바이오)과 글로벌 경기/교역회복시 모멘텀 강화가 기대되는 수출주(반도체, 자동차)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트럼프와 바이든 지지율 변화, 정책 이해득실에 따른 단기 등락, 변동성 확대는 비중확대 기회이다. 여기서도 핵심은 펀더멘털, 실적, 성장동력이다.
-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취임 직후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 2021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은 경기부양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다. 차별적인 성장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 성장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는 업종/종목군으로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고, 집중화하는 전략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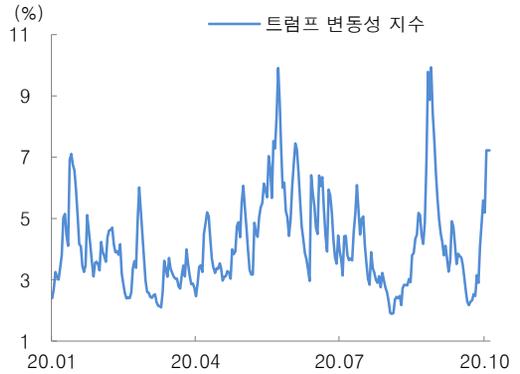
1. 트럼프 코로나19 확진.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불가피

그림 1. 트위터로 코로나19 확진을 알린 트럼프



자료: Twitte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트럼프 변동성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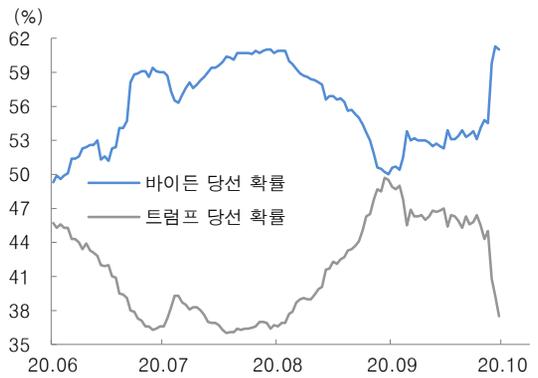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1차 TV 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 확대. 당선 확률은 바이든이 23.5%p 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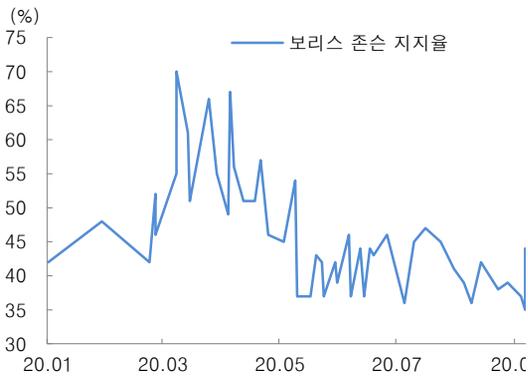


자료: Real Clear Politics,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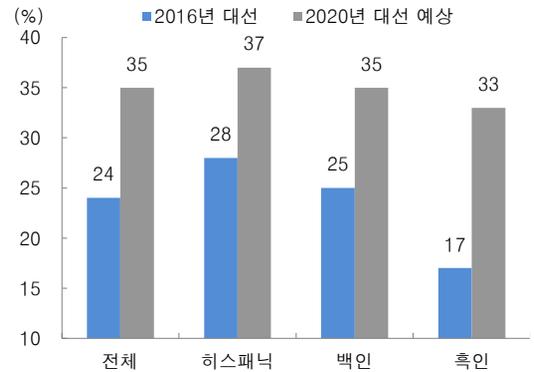
자료: Real Clear Politics,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존슨 영국총리 코로나19 확진 이후 지지율 70%까지 급등



자료: YouGov 등 1,500명 이상 여론조사 인용,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높아진 우편투표 비율. 트럼프 대선 불복의 이유 중 하나



자료: FiveThirtyEight,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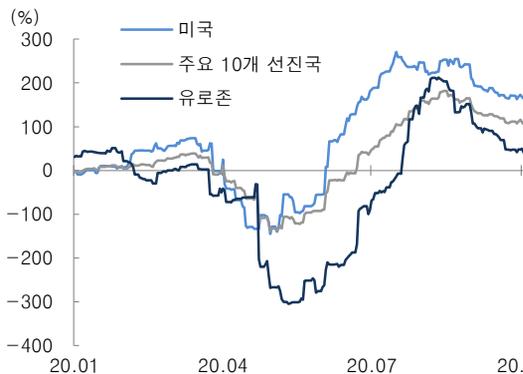
그림 6. 정치적 성향만큼 정반대의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바이든 압승 시 증세, IT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심리 유입 가능

트럼프			바이든	
산업 영향	정책	구분	정책	산업 영향
대기업 수익성 영향 제한적 (기업 비용부담은 완화), 완화적 반독점조사는 IT 기업에 긍정적	법인세 인하,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완화적 반독점조사	조세 및 규제	법인세, 소득세 인상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강화/규제 강화	기업 이익에 부정적(비용부담 확대) IT 기업에 부정적 이슈
오바마케어 폐지는 민간 보험사에 긍정적, 의약품 가격 인하는 제약사에 부정적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성 확인 필요)	오바마케어 폐지, 의약품 가격 인하	헬스케어	오바마케어 유지, 물가상승률에 맞춰 약값 소폭 인상	민간 보험사에 불리, 약값 소폭 인상은 제약사에 긍정적
전통 에너지 기업에 긍정적, MLP 기업 규제 부담 완화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환경	에너지산업 규제 강화	전통 에너지기업에 부정적(환경 규제 강화). 신재생 에너지 기업에 호재
해외 수출 기업들에 부정적, 보복 관세 불확실성 존재	보호무역주의	대외정책	다자주의	해외 수출 기업들에 긍정적
SOC, 5G, 광대역 네트워크 관련 산업에 긍정적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	인프라	2조달러 그린 뉴딜 사업 추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집중

자료: 후보별 대선 캠페인,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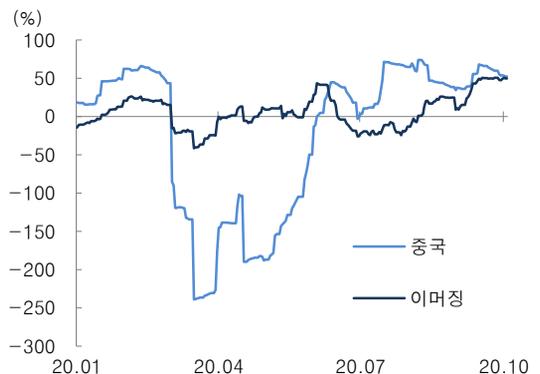
2. 펀더멘탈 눈높이 조정 & 경기회복 속도 둔화

그림 7. 펀더멘탈에 대한 눈높이 조정 진행 중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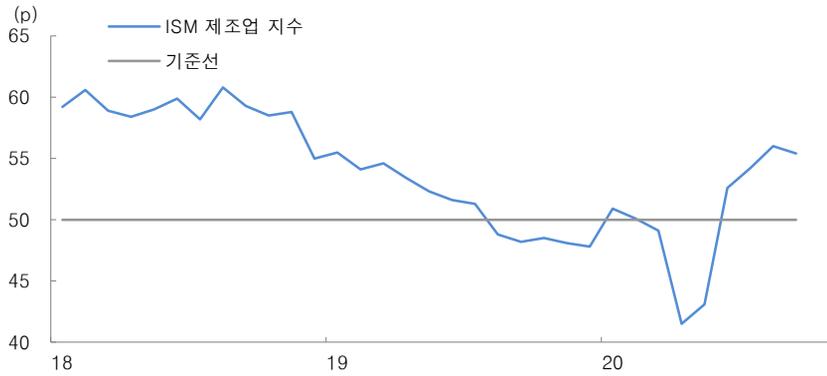
자료: C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8. 중국, 이머징 지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도 하향조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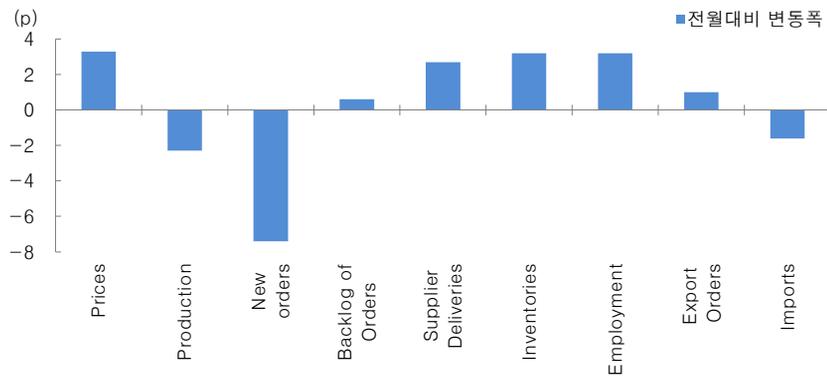
자료: CTI,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9.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대비 부진 & 예상치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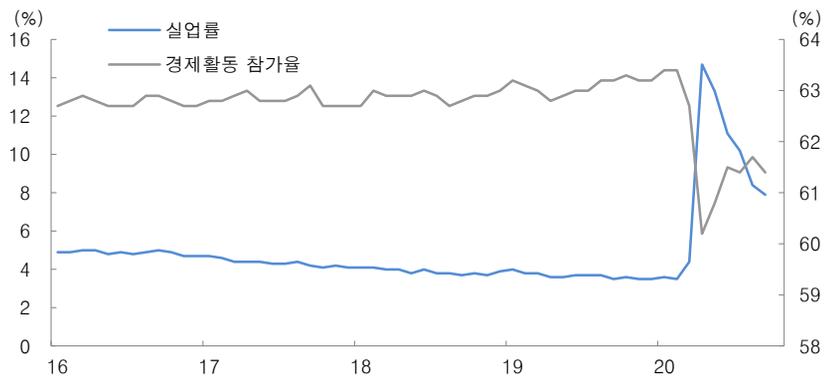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 둔화의 중심에는 생산, 신규주문이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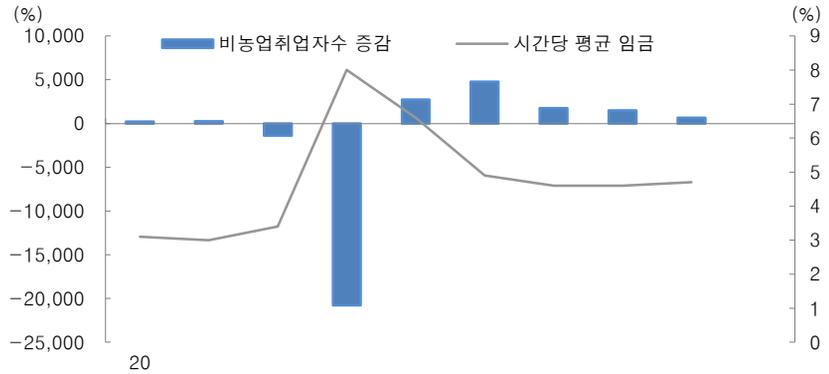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미국 실업률 하락은 지속되었지만, 경제활동 참가율도 꺾여...



자료: 美 노동부,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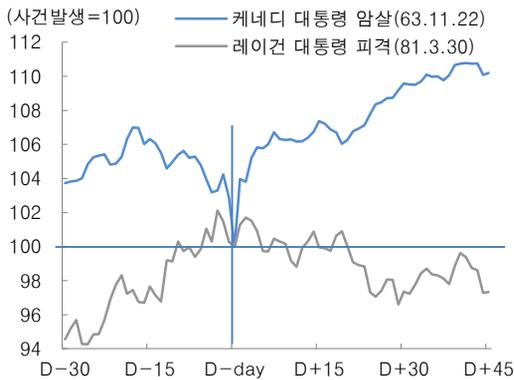
그림 12. 비농업취업자수는 전월대비 부진했고, 예상치 하회



자료: 美 노동부,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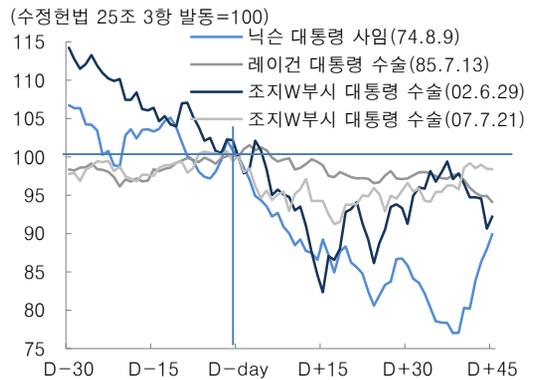
3.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는 단기 변동성 확대로 이어져

그림 13. 대통령 암살/피격사건 전후 S&P500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미 수정헌법 25조 3항 발동 전후 S&P500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5. 고공 행진 중인 외환시장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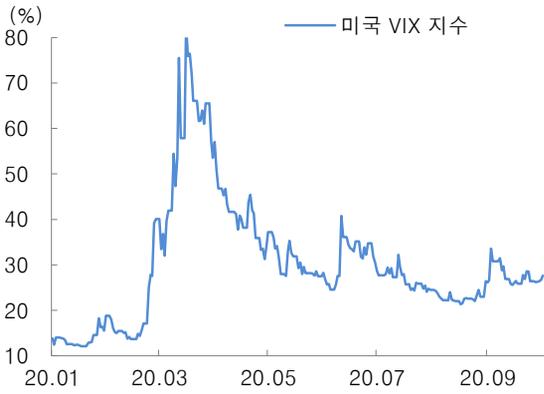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 채권시장 변동성 저점에서 반등 시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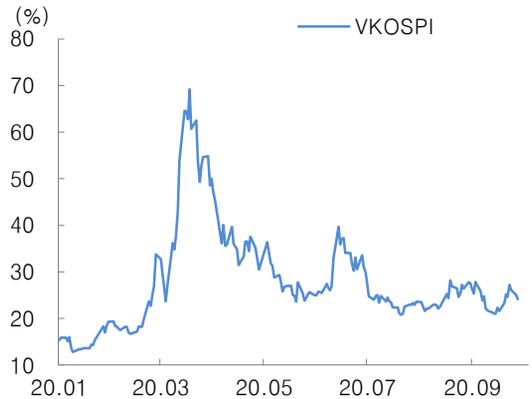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7. 미국 증시 변동성도 확대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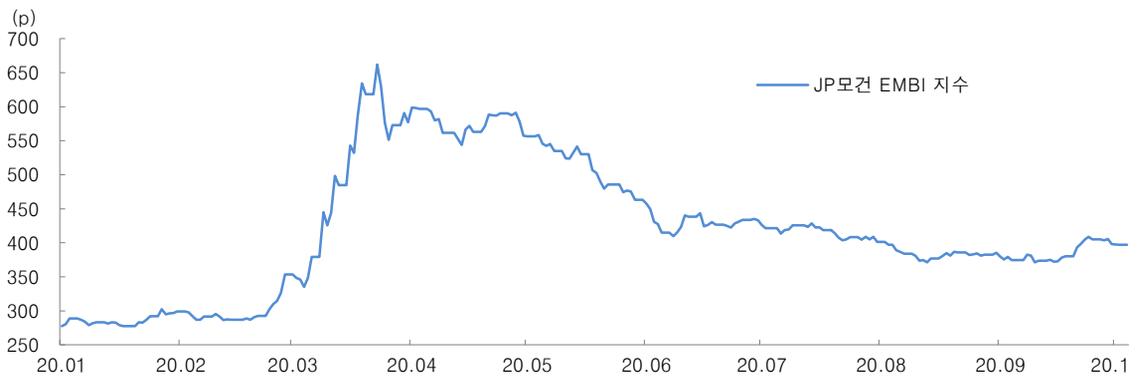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8. 꺾었던 한국 증시 변동성... 다시 상승?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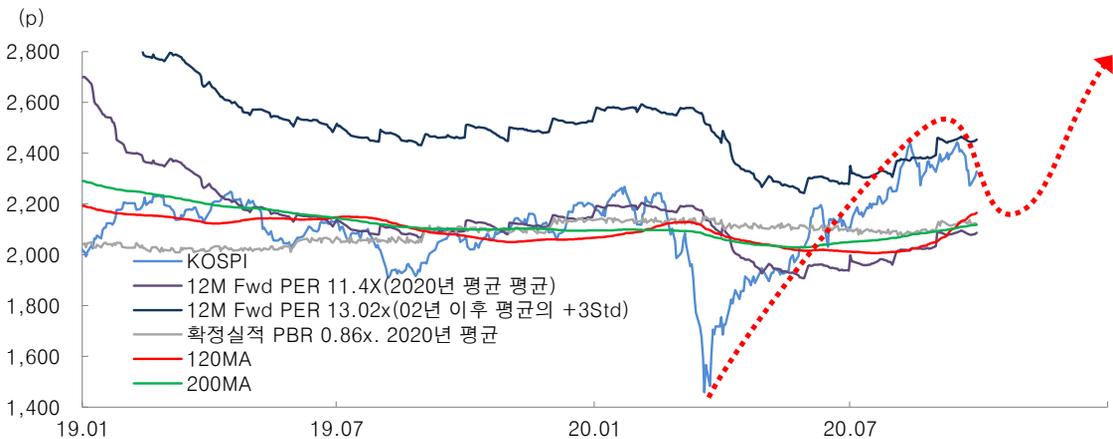
그림 19. 아직은 하향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목해야 할 지표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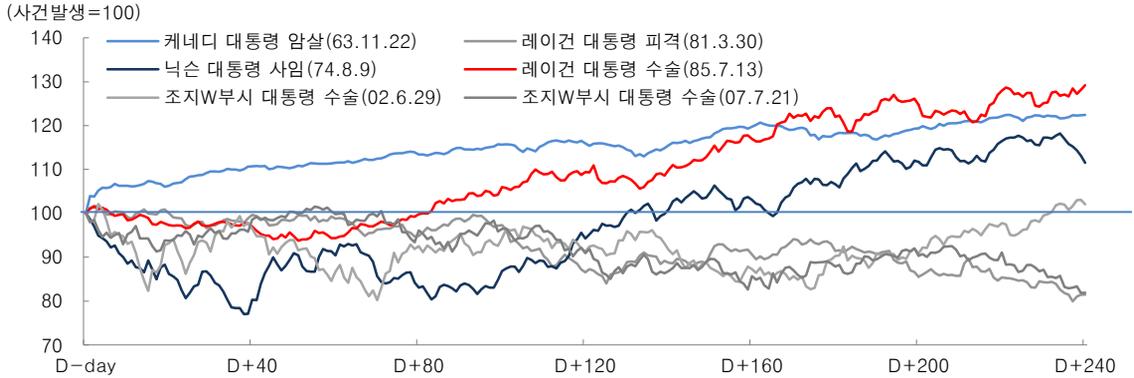
4.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핵심은 펀더멘털

그림 20. 4/4분기 KOSPI 전약후강 패턴 전망. 당분간 추가 하락압력 가중... 그러나 상승추세는 재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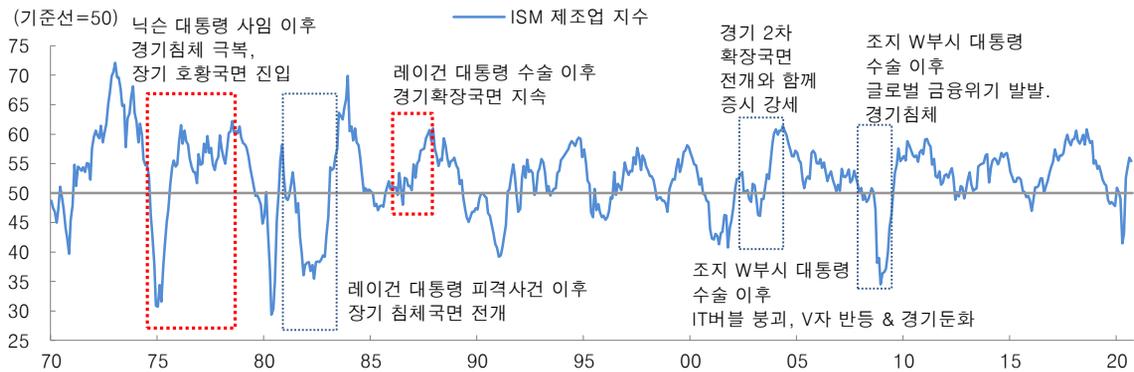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1. 정치적 불확실성 증폭 이후 1) 곧바로 상승추세를 이어간 1963년, 2) 1년 안에 전고점을 넘어 추세적인 상승을 재개한 1974년과 1985년(지수는 S&P5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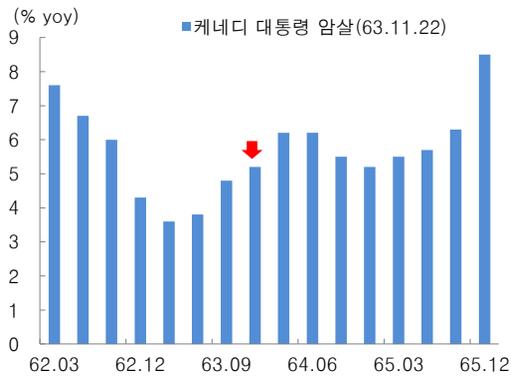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2. 경기 상황이 증시 추세를 결정. 침체 - 회복 - 확장국면 재진입, 2차 확장국면 진입시 증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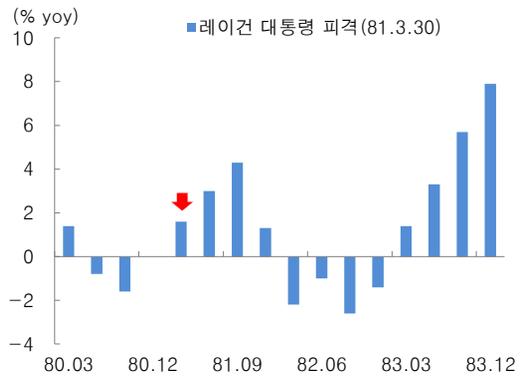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3. 케네디 대통령 암살 당시 미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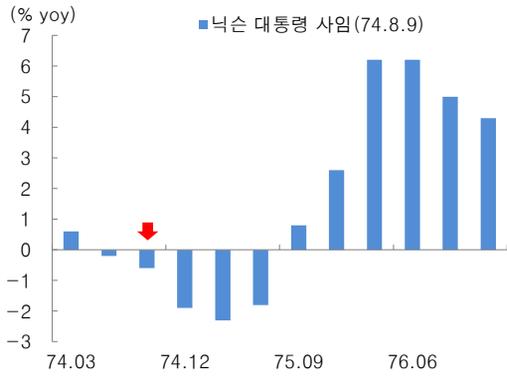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4. 레이건 대통령 피격 당시 미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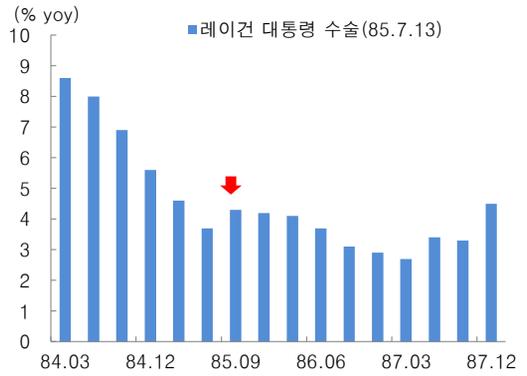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5. 닉슨 대통령 사임 당시 미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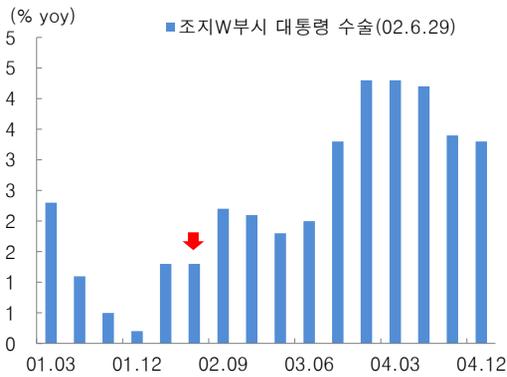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6. 레이건 대통령 수습 당시 미국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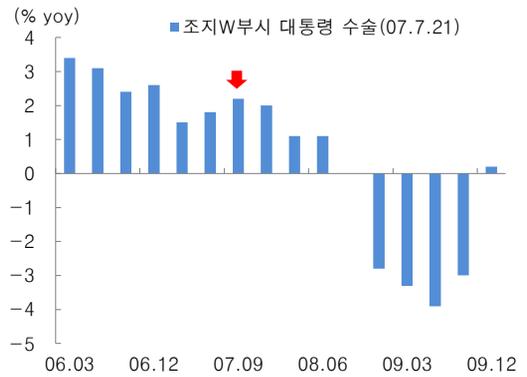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7. 부시 대통령 수습 당시 미국 GDP 성장률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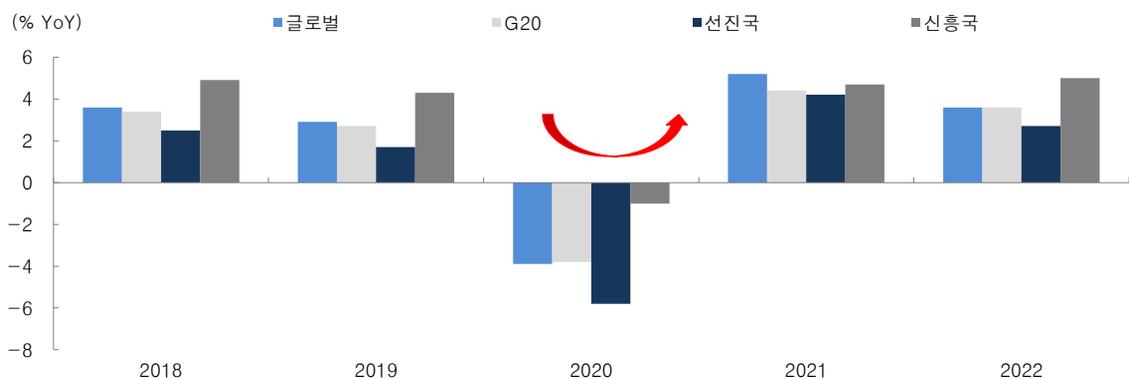
그림 28. 부시 대통령 수습 당시 미국 GDP 성장률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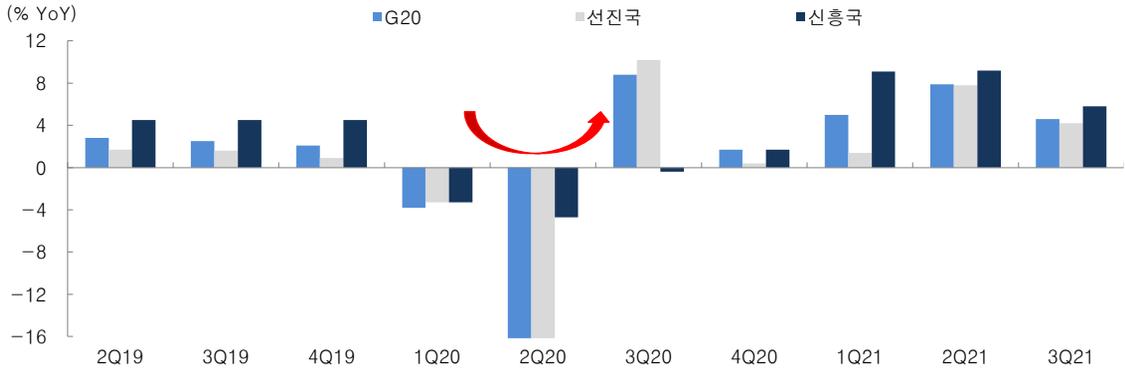
5. 2021년 상반기까지 펀더멘털 모멘텀 강화 전망 & GDP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세 뚜렷

그림 29. 2021년 V자 경기반등 예상(연간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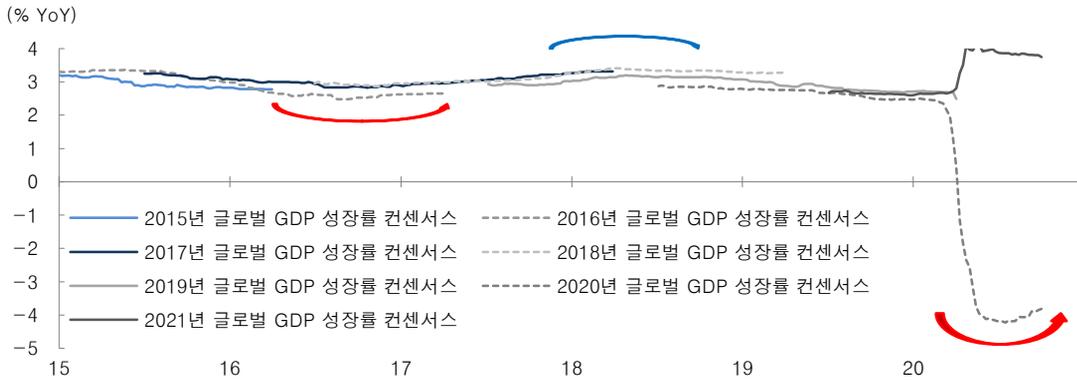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0.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은 4분기 둔화 이후 2021년 2분기까지 경기모멘텀 강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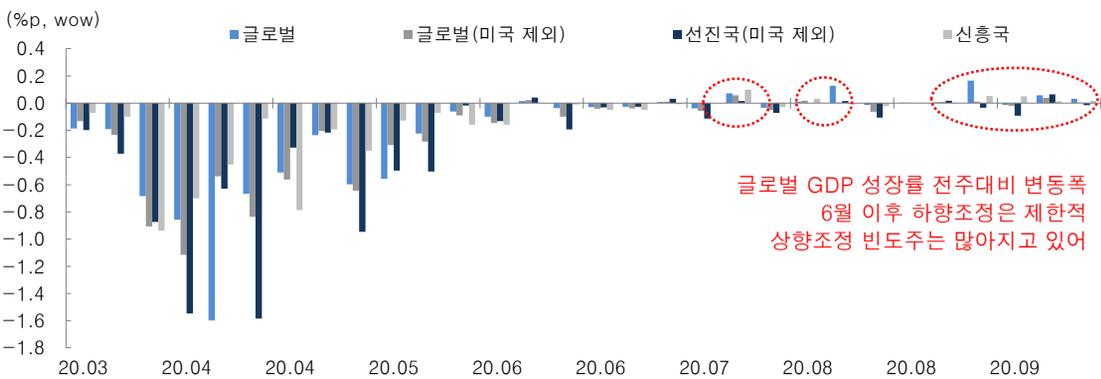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1. 2020년 GDP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가시화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2. 글로벌 전 지역에서 GDP 성장률 상향조정. 9월들어 전주대비 GDP 성장률 상향조정 빈도수 증가



글로벌 GDP 성장률 전주대비 변동폭 6월 이후 하향조정은 제한적 상향조정 빈도수는 많아지고 있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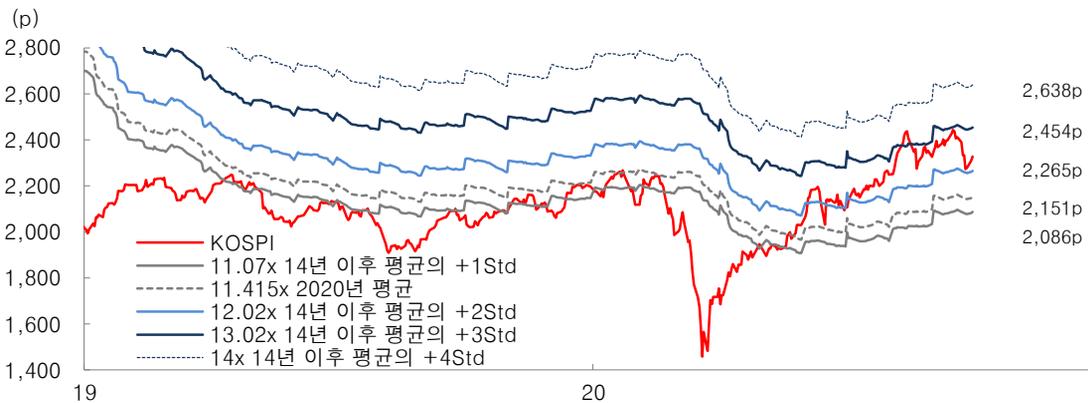
그림 33. 4/4분기 중 글로벌 증시, KOSPI는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털 장세로 진화할 전망
유동성, 정책 동력은 유효한 가운데 펀더멘털 모멘텀 가세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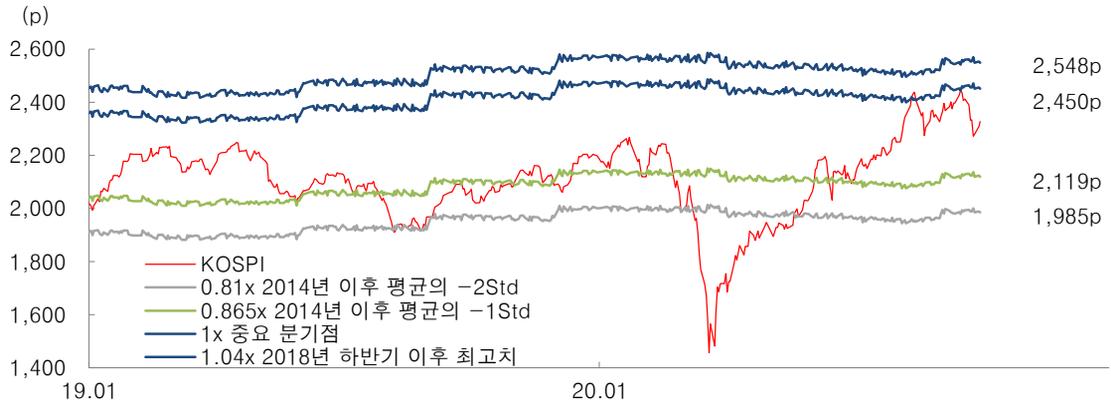
6. KOSPI 중요 지지선은 2,150선 전후. 최악의 경우라도 2,000선 이탈 가능성은 낮아

그림 34. 12개월 선행 PER Band. 1차 지지선은 2,150선, 2차 지지선은 2,080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5. 확정실적 기준 PBR Band. 중요 지지선은 2,120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6. 달러 인덱스 추가 반등 가능성. 92p 회복/안착시 추가적인 레벨업 가능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7. 원/달러 환율은 1,175원 상회 여부 중요. 원화 약세 압력 확대 = 외국인 수급 불안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차별적인 수요/펀더멘털 동력을 보유한 업종 비중확대 전략 유지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구조적 성장 & 코로나 19/정책 수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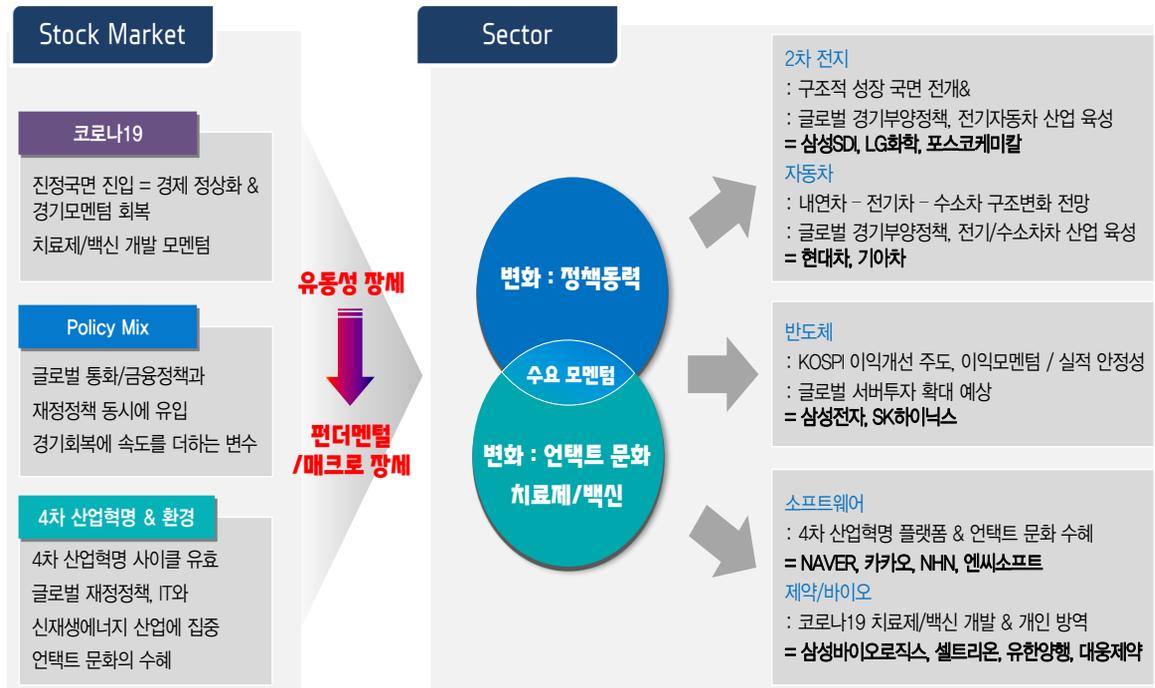
+ 반도체, 자동차(정책 + 경기/교역 회복 기대)

그림 38. 20년 차별적인 이익 성장 & 21년 이익모멘텀 강화 지속 =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21년 이익모멘텀 강화 & 이익전망치 상향조정 가시화 = 자동차

이익증가율 저점 시점	업종	이익증가율(YoY, %)						1M 실적컨센 변화(%)			
		4Q19	1Q20	2Q20	3Q20	4Q20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19년	시장전체	-22.4	-29.7	-10.8	17.0	48.1	-34.1	1.6	39.1	0.8	0.3
	건강관리	72.2	41.6	41.5	41.0	82.9	7.3	50.4	24.4	-0.3	-0.2
	보험	적전	-9.3	57.2	10.8	흑전	-41.1	37.1	5.2	1.6	1.4
	소프트웨어	21.3	32.5	35.3	29.6	41.1	-3.2	34.8	37.5	0.5	0.5
	반도체	-51.3	-4.4	39.9	38.9	40.9	-61.8	28.7	37.3	2.7	0.5
	필수소비재	16.8	23.8	41.0	18.3	22.1	7.8	25.7	6.7	0.5	0.3
	IT가전	-62.4	12.3	-26.0	7.0	496.8	-15.2	20.8	25.6	5.8	3.7
1Q20	IT하드웨어	-24.1	29.0	-15.4	-4.5	39.3	-19.0	14.7	26.6	3.1	3.5
	화학	-41.6	-51.6	-13.5	17.0	343.0	-41.5	17.1	56.5	4.2	4.7
	기계	-6.1	-19.3	-15.0	26.4	262.8	-15.3	16.0	24.4	1.3	1.6
	통신서비스	14.5	-1.6	23.9	17.3	35.4	-8.0	15.5	10.6	0.0	-0.2
	증권	338.9	-84.9	71.3	25.6	-8.6	42.6	-6.9	0.9	2.2	0.8
	상사,자본재	25.6	-81.5	-41.7	1.6	76.5	-11.2	-26.4	65.2	-2.9	-1.7
	운송	-27.9	적전	269.4	-68.5	137.6	-40.9	-40.7	143.9	-21.4	-8.7
2Q20	디스플레이	적전	적지	적지	흑전	흑전	적전	적지	흑전	적축	3.4
	에너지	흑전	적전	적전	-24.2	32.7	-24.5	적전	흑전	-34.5	-3.2
	호텔,레저	48.4	적전	적전	적전	적전	15.7	적전	흑전	적축	1.1
	조선	흑전	87.2	적전	흑전	-5.1	-61.1	224.8	258.2	-27.4	-8.6
	비철,목재	13.4	4.9	-26.2	17.1	37.0	-3.0	6.3	9.6	1.2	1.1
	건설,건축	6.3	5.7	-8.7	2.5	13.4	-1.8	2.8	11.2	-1.0	-0.8
	은행	36.8	-3.4	-15.3	-8.9	4.0	21.1	-8.2	5.1	0.2	-0.1
자동차	52.8	-10.6	-72.4	34.8	10.8	34.4	-13.9	53.8	1.5	1.9	
화장품,의류	16.7	-23.5	-35.1	-21.2	8.5	13.1	-19.5	33.4	-0.7	-0.7	
소매(유통)	-5.1	-51.8	-67.0	-11.6	14.4	-18.9	-28.4	67.2	-1.9	0.8	
철강	-74.4	-49.8	-78.6	-51.0	101.9	-34.9	-46.0	65.9	0.6	-0.9	
미디어,교육	4.7	적전	적전	-61.2	-16.0	7.8	-73.2	306.8	-24.5	-3.2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9. 기존 수요/실적 모멘텀에 사회/문화 변화와 정책동력이 가세하는 업종군에 집중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 반도체, 자동차 비중확대 전략 유효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